



보도 일시	<전매체> 배포즉시	배포 일시	10.16.(수), 8시
-------	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제조혁신기획실	책임자	팀 장	정호용 (044-300-0980)
		담당자	책 임	임인근 (044-300-0922)
배포 부서	홍보전략팀	책임자	팀 장	김민철 (044-300-0720)
		담당자	주 임	김셋별 (044-300-0721)

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, 한-독 스마트 제조혁신

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다

- 스마트 제조혁신 교류협력을 위한 세미나 개최 -

□ 한국-독일 양국 간 스마트 제조혁신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, 독일대표단 방한에 맞춰 중소벤처기업부, 독일연방경제기후보호부 등이 참석하는 ‘한·독 스마트 제조혁신 교류협력 세미나’가 10월 1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되었다.

- 이번 세미나는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(이하 BMWK)를 비롯해 독일 대사관 및 IM-X*, LNI4.0**, VDMA*** 등 협회·단체 소속의 18인으로 구성된 독일대표단이 방한하면서 주요 일정 중 하나로 열렸다.

* IM-X : 국제 메뉴팩처링 X 협회(International Manufacturing-X Council)

** LNI 4.0 : Labs Network Industrie 4.0

*** VDMA : 독일 기계공업협회(Verband Deutscher Maschinen- und Anlagenbau)

-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(이하 추진단) 안광현 단장은 “이번 세미나가 양국 간 스마트 제조혁신 관련 정책과

데이터 생태계에 관한 추진현황을 공유하는 등 양국 간 교류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됐다”고 밝혔다.

- 이번 세미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추진단이 최근 발표한 ▲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방안 ▲ 제조데이터 표준화 추진현황을 독일 측에 공유했으며,
 - BMWK의 Markus Hess 국장이 ▲ 독일 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정책 범위 및 목표를 공유하는 순서로 양국 정책에 관한 소통이 이뤄졌다.
- 이외에도 추진단-LNI4.0 MOU 후속 실행과제인 한·독 간 협력교류 활동을 알리기 위한 백서 제작, IM-X 국제회의, 합동 포럼 등에 대한 추진계획 공유 및 논의 등 실무협의로도 진행됐다.
 - 추가 안건으로 클래스돔 코리아 윤양진 팀장의 ▲ 자동차 분야 공급망 연계 실데이터 기반 PCF 산출 및 Catena-X 연동 시연과 ▲ 한국-독일의 협력 우수사례 및 사업협력 확장 계획 발표도 이어졌다.
- 추진단은 다가오는 11월 IMX 국제회의(미국) 참석과 ‘25년 합동포럼 등 글로벌 교류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,
 - 이번 교류협력 세미나를 통해 양국 간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과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원활한 환경규제 대응을 기대하고 있다.